

#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허남준\*\*

- I. 바다를 건너온 신
- II. 바다를 관장하는 용신
- III. 해양능력과 탐라국 신화
- IV. 바다 바깥과의 교류
- V. 결론

## 국문요약

이 논문은 바다의 대표적 신격인 용신을 우선 고찰했다. 용신이 당신으로 모셔지고, 조상신으로도 모셔진다. 제주도 전역의 일반신으로 숭배된다. 둘째, 당신 본풀이에 보이는 여신들의 도래와, 탐라국 건국신화의 삼녀신의 도래를 비교했다. 거기에서 탐라국 형성의 근간을 찾았다. 셋째, 강남천자국의 출자를 살피면서, 제주인들에게 인식된 중국과 천자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폈다. 제주도 본풀이(敍事詩)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주년국’ 일본, 삼녀신의 出自處인 일본과의 교류도 살피고, 육지와와의 교류에서 비롯된 신앙과 신화도 살폈다.

한반도의 신화는 천상에서 하강한 신의 내력이 위주인데 제주 신은 땅에서 솟아난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 대개 바다를 건너온다. 바다 멀리 출자처는 다양하다. 바다 멀리 상상의 나라일 수도 있고 일본과 중국 같은 구체적인 장소인 경우도 있다. 제주와 인접한 일본에서 신이 온다고 하거나 바다의 신이 일본 주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년국에 가서 신이 되었다고 한 경우도 있다. 바다 멀리를 ‘강남천자국’이라 한 경우도 많은데 중국을 지칭한 듯하다. 위대한 신이 중국 천자의 땅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신의 권위를 높여려 한 것이다.

바다를 근거로 살다 보니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용왕신을 주요 신앙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용왕의 딸이 인간세계에 와서 신앙대상이 된 경우도 많다. 산육신이 용왕의 딸이다. 송당계 신화에서 문곡성이 쫓겨나 용궁에 가서 용왕의 셋째 딸과 혼인하여 제주로 데려오는 화소가 가장 대표적이다. 영등신앙은 바다를 건너온 외래신이 중요하게 신앙된 흔적이다.

제주에 있어 바다는 풍요의 근거였고, 많은 신들이 오는 길목이었고,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던 소통의 장이었다. 바다를 통해 일본·중국과 교류하였고 이따금 표류를 겪으면서 오키나와·대만·월남에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제주는 자의견 타의견 바다로 열린 섬이었다. 그래서 해양문화가 오래 된 제주신화 속에도 오롯이 남아 있다.

주제어 : 용신, 군웅(軍雄), 동해용왕, 탐라국, 강남천자국(江南天子國), 일본국(日本國), 영등신(靈登神), 뱀신, 나주(羅州), 삼승할망.

## I. 바다를 건너 온 신

한국 신화를 보면 대개 하늘에서 인간세계에 하강한 내용이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알로 태어나 바다를 건너온 신의 이야기가 일부 보인다. 제주도에는 땅에서 솟아난 신과 함께 바다를 건너온 신이 대등하게 나타난다. 남신이 땅에서 솟아났다면 여신은 바다를 건너온 신인 경우가 많다. 바다 저편 땅에서 솟아난 후 바다를 건너 제주에 온 신도 있다. 한반도가 대륙문화적 속성이 강하다면 제주는 해양문화적 속성이 강하다.

제주의 해양문화라고 하면 남방 문화적 속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 해역 주변이 모두 영향을 주는 곳이고,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를 통한 문화적 교류도 있지만 한반도의 문화적 영향이 크고 중국과 일본의 영향도 있다. 모든 문화는 교류로 빛어진다. 제주는 해양 교류를 통해 문화가 형성되었고 신화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신화를 들여다보면 다양

한 문화적 속성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적 측면까지도 엿볼 수 있다. 본고는 신화 속에 내장된 해양문화를 살피려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해양 교류를 통해 축적되는 것이어서 교류의 역사성을 별도로 강조하고자 한다.

누군가 밖에서 오면서 문화적 충격이 가해지고 사회는 변하게 마련이다. 4면이 바다인 제주에서는 바다 속 용왕의 딸이 왔다거나 아들이 와서 좌정하였다는 신화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바다 속에서 왔다는 신화 다음에는 바다 저편에서 왔다는 신화가 있을 것이다. 탐라국 건국신화도 토착족이 바다를 건너온 도래족을 만나 이루어졌다. 바다 저편에서 오국 종자를 가져온 선진문화 집단을 만나면서 탐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다. 제주 신화에서 주목할 바다 저편은 ‘강남천자국’이다. 중국은 강남천자국이란 명칭으로 제주 신화에 빈번히 등장한다.

육지와 교류를 빼놓을 수 없다. 이른 시기부터 교류를 이어왔는데, 처음에는 고구려와, 다음에는 백제와 교류를 맺고 오랜 조공관계를 가졌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는 신라와, 고려 건국 후에는 고려와 관계를 이어왔다. 탐라국이란 독립국가로서 12세기 초까지 교류를 이어오다가 그 이후는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는 지방으로 그 영향관계를 이어왔다. 긴밀한 관계가 되면서 탐라국 신화도 육지 쪽 천강신화에 동화되고, 고려 건국신화가 균용본풀이로 남게 된다. 그 이후 다양한 신앙과 신화가 교류하는데 ‘일반신본풀이’는 한반도의 영향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는 한반도의 일부분이지만 동북아시아와 만주에서 비롯된 북방계 문화와 해양으로부터 비롯된 남방계 문화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곳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반도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면서 점점 한반도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그렇다면 그런 영향이 없던 제주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주의 신들은 대개 땅에서 솟아난다고 했다. 땅은 만물을 산출하는 근거지이고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의 초기 창조신화는 최초의 인간이 식물처럼 대지로부터 솟아올랐다고 상상한다. 최초의 인간은 씨앗과 같이 지하세계에서 생애를 시작한다.”<sup>1)</sup> 제주의 3신 탄생신화는 그래서 땅에서 솟아나는 가장 원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1) 카렌 암스트롱,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51쪽.

있다고 할 수 있다.

탐라국 신화(삼성신화)는 고대국가 형성기의 신화다.<sup>2)</sup> 탐라국 건국신화의 모태가 된 것은 ‘송당본풀이’ 계열의 당 신화다. 거기에는 땅에서 솟아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탐라국 건국신화에는 땅에서 솟아난 원시적 요소와, 문명을 받아들여 나라를 세운 고대적 요소가 섞여 있다. 제주의 신화 대부분은 신이 땅에서 솟아난다. ‘지중용출(地中湧出)’은 제주만의 독특한 모티프이고 남방 해양 신화와의 영향관계도 일부 내재해 있다.

제주와 달리 한반도 고대국가 건국주의 등장은 대부분 하늘(천상계)에서 비롯된다. 부족연맹을 이루고 있던 기존 세력을 진압하여 왕권을 공고히 하려면 하늘의 권위가 필요했다. 그래서 단군신화부터 건국 주인공은 하늘에서 출자(出自)한다. <고려사>에 기록된 탐라국 건국신화는 3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고 서술한 뒤에, ‘中有絕巖 降神子三人’이라 하였듯이 산악에 신이 하강한 사유를 담고 있다. 중세 국가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제주신화도 땅에서 솟아난 것에서부터 서서히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변천하는 증거다. 중세 지배자 고려의 신화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격의 틀을 모방하고 그 권위를 빌려오는 형식을 취하면서 신화의 후반부가 천강(天降)의 모티프를 드러낸다.

당신본풀이를 보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위주로 하다가,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신들이 등장하고, 중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유를 은근히 덧보탤었다. 일반신본풀이에 땅에서 솟아나는 모티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서 후대에 만들어지거나 육지에서 유입된 신화일 것으로 보인다. 당신본풀이에는 그 출자 방식이 다양하다.

각시당: “옥황상제 말жат딸(末女)”가 천상에서 죄를 지어 “인간에 내려와”(306쪽)  
 눈미불덧당: “옥황상제 말жат딸아기 … 귀양정배(定配) 보네니, 노각성즈부출

2) 천강 화소가 고대국가 건설기 지배자의 신화라 한다면, 제주의 것은 이보다 앞선 시기 농경을 위주로 하는 신석기의 신화다. 그 원시적 신화 형태가 그대로 고대국가 형성기까지 지속된 것이 탐라국 건국신화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원시적 형태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天降神話를 조작해 냈다고 하겠다.

로 와산(臥山) 당오름 상상봉오지에 느러왔는디”(312쪽)

칠머리당: “도원수 출생(出生)히시기가 강남천제국(江南天子國) 가달국서 솟아나옴고, 하늘은 아바지요 따(地)는 어머니요, 장성(長成)히니 천하명장(天下名將)이라 … 요왕국(龍王國)에 들어가서 요왕부인(龍王夫人)을 정하야 제주도(濟州島) 들어와서”(308쪽)

내왓당: “소천국은 제주절도(濟州絶島) 섬 솟아나고, 소천국 배위(配位)는 강남천제국(江南天子國) 백물래왓(白沙田)디서 솟아난 백주마누라뎌데다.”(298쪽)

김녕큰당: “강남천제국(江南天子國) 정죽국 안가름(內洞)서 솟아나신 삼형제가 제주 입도(入島)해야, 큰성님은 조천관 정중부인 … 중형님은 짐녕 관세전부인 … 죽은 아시 열누니 멩호부인”(316쪽)<sup>3)</sup>

각시당과 눈미불뎛당의 신은 옥황상제의 막내딸인데 하늘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불뎛당의 신은 ‘노각성자부줄’이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줄을 타고 내려온다고 한다. 그 줄은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이 타고 오르는 박 줄기와 비슷하다. 천지왕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당신들은 중세적 분식이 가해진 증거가 아닐까 한다. 칠머리당의 신은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났는데, 백만 대병을 거느리고 용왕국에 들어가 용왕부인을 맞이한 후 바다를 건너 제주에 들어와 한라산에 진을 치고 있다가 땅의 기운을 좇아 칠머리에 좌정하였다. 칠머리당 영등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는데, 이처럼 제주의 중요한 신들은 강남천자국에서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다 건너 영웅이 태어난 곳 강남천자국, 그 의미는 뒤에 자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내왓당은 송당에서 가지 갈라온 당이어서 그 본풀이가 거의 비슷하다. 내왓당의 남신은 제주도 땅에서 솟아났는데, 백주또는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후 바다를 건너 제주로 도래한다. 여신의 도래는 김녕큰당에도 나타난다. 세 여신은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후 제주에 왔다고 하는데, 셋째가 열누니(온평리의 옛 이름)의 ‘멩호부인’이다. 김녕, 조천, 온평이 육지와 다른 곳에서 신들이 도래하는 중요 포구임을 알 수 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온평리 당본풀이에도 있는데 그 출자처는 서울로

3)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298-316쪽.

되어 있다.

신디랫빌레 고장남밭 좌정호 맹호부인 맹호안전. 산시본산국은 서월 정기땅 의서 석 성제(三兄弟)가 솟아나니, 계수남배(桂樹木船)를 타고 제주섬 구경오라 (구경와) 조천(朝天里)으로 들어오난(들어오니), 큰 부인은 조천관(朝天館) 정준밭 디 정중부인, 셋성님(仲兄)은 김녕(金寧) 관세전부인, 작은부인은 맹호부인. …… 낱은 낱은 생산 죽은 낱은 물고(物故) 호적장적(戶籍帳籍) 츠지호던 본향(本鄉) 한집. 열문이(溫坪里), 신산이(新山里) 양리슬(兩里) 츠지호 본향한집<sup>4)</sup>

서울로부터 세 형제가 배를 타고 제주에 들어왔다고 한다. 첫째는 조 천 정중부인이고 둘째는 김녕 관세전부인이고 셋째가 바로 온평리 본향 당신인 맹호부인이다. 온평리는 바로 탐라건국신화의 세 여신이 도착한 곳으로 구전된다. 온평리 당본풀이의 세 여신과 탐라건국신화의 세 여신 은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바다를 건너는 신들의 이야기는 이처럼 문 헌신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탐라건국신화의 3여신은 바다 먼 곳에서부터 출자한다. 그곳은 ‘벽랑국(碧浪國)’ 혹은 ‘일본국’이라 한다. 벽랑국은 바 다 먼 상상의 땅, 니라이가나이와 같은 해양낙토로 본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신은 인간에게 불이라거나 생명과 연관된 것을 가져다준다고 여겼고, 그 다음 시기에는 비단, 철, 오곡종자 등 고대문명을 전해 준다 고 여겼다. 제주의 민속에도 1년에 한 번 내방하는 영등신이 있다. 바다 를 곁에 둔 제주사람들에게 어업과 물질작업은 매우 중요했고, 이와 연 관된 영등제는 제주 해양문화를 살피는 데 중요한 신앙이다.

육지의 영등은 하늘에서 내려온다<sup>5)</sup>고 여겼는데 반해 제주에서는 바다 저 편 ‘강남천자국’에서 온다고 여겼다. 영등신은 풍신의 성격이 강하다. 이 신은 풍신의 성격이 강하지만, 바람은 해상어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 으므로 어촌의 경우 어업과 관계 깊은 신으로 변모된 듯하다. 그래서 제 주도의 경우는 해상안전, 풍어, 해녀 채취물의 증식 보호신으로 신앙하 게 된 것이다.<sup>6)</sup> 영등신은 풍신에서 풍요신격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88-689쪽.

5) 김진순,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 『비교민속학』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6)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79쪽.

이 영등신앙은 바닷가에 널리 분포하는 용왕 신앙과 밀접하다. 영등제는 영등신을 모시는 의례인데, 그 제차를 보면 요왕맛이를 주로 하고 있다. ‘요왕질침’은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함께 치워 닦음을 그 사설 내용에서 알 수 있다.<sup>7)</sup> 영등굿은 영등신에 대한 제의이면서 용신에 대한 제의를 겸하고 있는데, 영등신이건 용신이건 바다의 풍요신격이기에 혼효되어 버렸다. 제주 칠머리당영등굿도 그렇다. 본향당굿인데 본향당신인 도원수감찰관과 용왕부인을 모시면서 영등신을 함께 모시고 있다. 영등굿의 주요 제차에 용왕맛이를 담고 있기도 하고, 본향당신을 모시는 자리에 영등신이 주요한 신격으로 모셔지니, 그 둘은 바다의 풍요신으로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본고는 바다의 대표적 신격인 용신을 우선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용신이 당신과 함께 모셔지는 상황처럼 용신은 일반신본풀이에도 개입하고, 조상신으로도 좌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상호 연관성은 어떤지 살필 것이다.

둘째, 당신본풀이에 보이는 여신들의 도래와 탐라국 건국신화의 삼여신의 도래를 비교하면서 탐라국 형성의 근간을 찾아보고, 탐라국 건국신화와 송당계 당신본풀이와의 연관성도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셋째, 제주 바다 주변과의 교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신화를 살필 것이다. 강남천자국의 출자를 살피면서 제주인들에게 인식된 중국과 천자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일본은 ‘주년국’으로 등장하는데, 삼여신의 출처처인 일본과의 교류도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지와 교류에서 비롯된 신앙과 신화도 살필 것이다. 그런데 이 교류는 오랜 것도 있지만 조선조의 교류가 신화 속에 반영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중세에도 신화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제주도 조상신본풀이로 남아 있다. 이런 후대적 신화도 제시하면서 제주도가 신화의 섬임을 강조하려 한다.

7)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69쪽.

## II. 바다를 관장하는 용신

세상은 물과 물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이 물보다 훨씬 넓지만 사람들이 살아온 바탕은 물이다. 물이 부족하고 불편할 때 인류는 물로 향했다. 땅은 풍요의 원천 같지만 누군가가 차지하고 지배하는 원천이 되고부터 결핍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땅이 메마르고 결핍일 때 물의 근원인 바다로 향했다. 풍요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바다로 향했다. 그래서 바다는 유토피아가 되었다. 바다 멀리 어느 곳에서 인간에게 불이 전래되고, 곡식 종자가 전래되고, 그런 귀한 문명을 가져오는 여신의 신화가 배태되었다.

그러나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였다. 풍어를 위해서 술한 고난과 죽음을 감수해야 했다.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자연의 위대한 힘에 직면하여 그 초자연적 존재에 경배하게 되었다. 깊은 바다 안쪽에 바다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파도를 안정시키는 것도 바다의 신격에 의해서, 고기를 잘 잡게 해 주는 것도 바다의 신격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었다. 그 바다의 대표적 신격은 용신 혹은 용왕이다.

그러나 어부의 안전과 풍어를 관장하는 신이 용왕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바닷가의 당신이 보살피기도 하고 바다 언덕의 산신이 보살피기도 한다고 믿었다. 갯당 할머니이건 산신이건 모두 마을 수호신이고 어부 수호신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다. 중세 종교인 불교와 유교가 전래되면서 관음신이 바다의 수호신 역할을 하기도 했고, 중국에서 들어온 마조신이 그 역할을 떠맡기도 하였다.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 어부를 구해주고 어부의 풍요도 관장한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임경업 장군과 최영 장군도 어부의 신이 되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신이 어부 수호신으로 좌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양 신앙은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바닷사람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와 기원이 수많은 해양 신을 만들어 냈다.

제주도에서는 용왕굿, 잠수굿에서 용왕은 바다 전체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모셔지는 것이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무후곶에서는 익사자가 빠진 바다를 관리하는 직능을 맡은 신이기 때문에 모셔지는 것이다. 용왕을 청하여 익사자의 시체를 가족에게 돌려보내 주도록 기원하는 것이



다. 영혼을 건져 올린 뒤에는 다시 시왕을 청하여 영혼을 잘 데려가 주도록 기원한다.<sup>8)</sup>

제주의 ‘갯뜨리’(제의 절차)에 따르면 해양신앙과 관련된 신으로 ‘다섯龍宮’을 꼽을 수 있다. 하늘 차지 옥황상제, 땅 차지 지부사천대왕, 산 차지 산신대왕 산신백관 다음인 네 번째로 바다 차지 龍神인 ‘다섯龍宮’이 제시된다. ‘다섯龍宮’은 동서남북과 중앙 다섯 방위의 용신을 말한다. 위계상으로 보아 용신은 매우 중요한 신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옥황상제(하늘 차지) 2. 지부사천대왕(땅 차지) 3. 산신대왕, 산신백관(산신)
4. 다섯龍宮(바다차지, 龍神) 5. 서산대사·육관대사(절 차지) 6. 삼승할망(產育神)
7. 흥진국대별상 서신국마누라(마마신) 8. 날궁전, 돌궁전(日月神) 9. 초공(巫祖神)
10. 이공(서천꽃밭 呪花 관장신) 11. 삼공(前生神) 12. 十王(저승과 생명 차지)
13. 差使(十王의 使者) 14. 冥官(冥府差使) 15. 세경(農畜神) 16. 군웅, 일월조상(一家, 一族 守護神) 17. 성주(家屋神) 18. 문전(門前) 19. 本郷部落守護神) 20. 靈魂, 魂魄, 마을(諸死靈) 21. 칠성(富, 穀物神) 22. 조왕(부엌신) 23. 오방도신(方位, 집터신) 24. 주목지신, 정살지신(집안 出入路神) 25. 울담·내담지신(울타리神) 26. 놀굽지신(날가리神)<sup>9)</sup>

큰굿의 절차에서 옥황상제(하늘), 지부사천대왕(땅), 산신대왕(산)에 이어 네 번째로 용왕신이 모셔지는데, 그 용왕신은 다섯으로 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바다를 중시했고 동해, 서해, 남해를 두루 거느리는 용신의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유교 예악사상의 영향을 받아 5방의 용신이 등장하게 된다. 하늘, 땅, 산, 바다의 신들이 모셔지는 중요한 단서를 보게 된다. 천지신을 위하고, 산신과 해신을 모시는 우리 민족의 신 관념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다음 인간의 탄생을 주재하는 삼승할망,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삼공, 인간의 죽음을 관장하는 시왕과 차사가 열거되어 있는데, 우주자연이 먼저 제시되고 인간의 생노병사가 뒤에 제시되어 가지런하다.

8) 강정석, 한국 제주도의 해양신앙, 『도서문화』27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 31-34쪽.

9)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189쪽.

## 1. 용왕과 군웅본풀이

용왕 신앙에는 용왕, 용왕부인, 동해용왕 따님아기 등이 등장하고 동해용왕과 서해용왕이 싸우는 설정도 있다. 그 대표적인 신화가 <군웅본풀이>다. 1937년 박봉춘본에 서사적 단락이 온전하게 전하는데 대략적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서해용왕과의 싸움에서 당한 동해용왕의 아들이 왕장군에게 도움을 청한다.
- 2) 동해용왕의 부탁대로 활을 쏘아 서해용왕을 물리친다.
- 3) 공에 대한 보답으로 용녀를 아내로 맞게 되어, 왕근, 왕빈, 왕사랑 세 아들을 얻는다.
- 4) 용녀는 용궁으로 돌아가고, 세 아들은 강남 천자군웅, 일본 효자군웅, 조선 역신군웅으로 살게 된다.<sup>10)</sup>

이 이야기는 이미 알려진 대로 <삼국사기>의 거타지 설화와 유사하고, <고려사>에 전하는 작제건 신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작제건이 용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용건이고, 그 아들이 고려 건국의 주인공인 왕건이다. 고려는 중세국가인데도 왕권의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대신화를 조작하여 중세신화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왕건의 탄생신화와 유사한 신화가 제주에 <군웅본풀이>로 남아 있다. 고려 건국신화가 제주에 전해져 흔적이 남은 것이 <군웅본풀이>는 아닐까. 고려 왕건이 여기서는 ‘왕근’이다. 이 신화에서는 고려 대신 조선이 국명으로 등장하고, 그 형제들이 조선뿐만 아니라 강남천자국(중국)과 일본국에 좌정한다고 한다. 왕이 세 아들이 각각 강남천자국, 일본효자국, 조선역신국 군웅이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역신은 마마신이고 무속에서 늘상 모셔지는 별상신이다. 세 아들이 각각의 역할(중국, 일본, 조선의 신격)을 맡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는 무엇으로 논다’는 식의 서술이 이어진다. 세 형

10) “나는 인간이 아니니 / 지금부터 용왕으로 드러가리니 / 당신들은 군웅을 차지하여 사읍소서 / 강남은 천자군웅으로 놀고 / 일본은 효자군웅으로 놀고 / 조선은 역신군웅으로 놀고 / …” (赤松知城·秋葉隆, 최석영 역, 『朝鮮巫俗의 研究』상, 민속원, 2008, 528쪽.)

제들이 강남에서는 천자군웅으로 높고, 일본에서는 효자군웅으로 높고, 조선에서는 역신군웅으로 논다는 데 초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여러 장소에 가서 음식과 술을 대접받으면서 논다. ‘높은 벼슬을 한 집 안에서는 사당위패에 높고, 중인의 집에는 책불일월로 높고, 무당의 집에는 당주일월로 높고, 사냥하는 집에는 산신일월로 높고, 과거급제한 집에는 홍부일월로 논다’고 이어진다.

일월은 조상신을 뜻한다. 제주의 무속 제차에서는 <군웅본풀이>를 부르는 ‘군웅본판’에 이어 <조상신본풀이>를 구연한다. 군웅본판은 원래의 조상을 의미하는데, 원 조상은 고려 건국신화와 친연성이 있는 <군웅본풀이>를 구연하는 것이어서, 제주도 <조상신본풀이>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증거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보인다.<sup>11)</sup> 원가닥의 군웅본풀이가 제시되고 그 후 각 집안의 조상신 내력이 제시되는 순서를 취한다.

군웅에 아바님은 낙수계낭  
 군웅에 어머니는 서수계낭  
 아덜이사 삼형제 나난  
 큰아덜은 동이요왕 초질허고  
 셋아덜은 서이요왕 초질허고  
 죽은아덜 전승팔저 그리치니  
 ... ..  
 강남드레 응허니 황제군웅(皇帝軍雄)  
 일본드레 응허난 스제군웅(小子軍雄)  
 우리나라 왕대비(王大妃) 대웅대비(大王大妃) 서단  
 놀던 일월이여  
 물 우이는 요왕일월(龍王日月)  
 물 앞에는 스신일월(四神日月)<sup>12)</sup>

여기서도 세 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동해용왕과 서해용왕이 되었고 막내는 팔자를 그르쳐 중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저기를

11) 김현선 외,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6, 28쪽.

12) 강정식 외, 『동북 정병준택 시왕맞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656쪽.

떠돌아다니며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남에서는 황제로, 일본에서는 소자로, 물 위에서는 용왕신으로, 물 아래에서는 사신으로 대응한다. 강남에서는 천자(천즈, 황제, 황제), 일본에서는 효자(소즈, 조자, 주년), 한국에서는 노즈(황즈, 대홍대비 서대비)<sup>13)</sup>로 직능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 본풀이는 한·중·일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장소를 들먹이면서 군웅이 모셔지는 정황을 길게 부연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군웅이 우리나라와 제주에만 국한하지 않고 강남천자국(중국)과 효자국 혹은 주년국(일본)에서 신격으로 활약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세 제주의 삶은 바다 멀리 중국과 일본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만 중국과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다를 통한 교류를 의미하며, 탐라국이 지녔던 해상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2. 할망본풀이와 용왕의 딸

용왕이 등장하는 신화가 다양하지만, 용왕의 딸도 중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바 있듯이, 제주의 ‘젯드리’(제의 절차)에 따르면 삼승할망이 여섯 번째인데, 그 삼승할망보다 앞서 산육을 관장했던 신이 바로 구삼승할망인 동해용왕 따님이시다. 삼승할망본풀이의 전반부는 구삼승할망의 내력이다. 현용준의 <제주무속자료사전>과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그리고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의 편한 <이용옥심방본풀이> 등의 <할망본풀이> 채록본들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시 가능한 핵심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 ① 용왕의 딸로 태어난 동해용왕아기씨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무쇠석함에 갇혀 바다에 띄워 버려진다.
- ② 무쇠석함이 바다를 오랜 시간 동안 떠돌다 인세에 당도하여 임박사에게 발견된다.

13) 현용준 선생이 기왕의 <군웅본풀이>에 있는 이름과 직능을 일람표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현 선생도 박봉춘본만이 작제건 설화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의문을 표하고 있다.(『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228쪽.)

- ③ 인간세상에 생불왕(產育神)이 없으므로 동해용왕아기씨가 생불왕으로 들어서 인간의 포태와 출산을 관장케 된다.
- ④ 동해용왕아기씨가 포태를 시키지만 낙태되거나 산달을 넘기도록 출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 ⑤ 임박사가 이를 보다 못하여 옥황상제에게 새로 생불왕을 내려달라 청원한다.
- ⑥ 옥황상제가 생불왕에 들어서기 가장 적합한 인물로 명진국아기씨를 골라 인세에 내려보내고 동해용왕아기씨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수습케 한다.
- ⑦ 인간 세상에 생불왕(產育神)이 둘이 되었으니,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둘이 옥황상제를 찾아가게 된다.

다음의 이야기 전개는 동해용왕아기씨와 명진국아기씨가 꽃피우기 경쟁을 하여 명진국아기씨가 승리하고 삼승할망으로 좌정하였다는 결말이다. 동해용왕아기씨는 밀려나 구삼승할망이 되었고 구덕삼승, 업계삼승<sup>14)</sup>으로 지내게 되었다. <할망본풀이> 서사의 전반부는 당신본풀이 <토산일췌당본풀이>와 유사하다.

- (1) 소로소천국과 금백조의 아들 브르못도가 죄를 지어 무쇠석함에 갇혀 동해바다로 버려지고, 석함이 용왕국에 다다르다.
- (2) 용왕국의 세 딸 중, 막내딸이 석함을 발견하고 열어 브르못도와 혼인을 하게 되다.
- (3) 브르못도의 석성 때문에 용궁의 공간이 비어가지 하는 수 없이 내외간을 무쇠석함에 띄워 보내니 다시 제주섬으로 들어오게 되다.
- (4) 브르못도가 부술(符術)을 사용하여, 금백조에게 눈에 콩깍지가 들게 한 것을 용왕국 막내딸이 부체를 부쳐 낮게 하였고, 그 공으로 용왕국의 막내딸이 땅 한 척, 물 한 척을 금백조에게 내어달라 하다.
- (5) 브르못도의 큰부인(일췌중저)이 첩인 용왕국 막내딸에게 땅과 물을 떼어 준다고 하자 애가 타고 목이 말라 돼지털이 코르 들어가고, 비린내가 난다고 쫓아낸다.<sup>15)</sup>

14) 동해용왕아기씨가 저승할망이 되자 아이들에게 경풍이나 병을 주어 얻어먹겠다고 분노하자, 인간할망이 다독거리면서 아이 업는 매향 수호신의 뭇과 업저지 수호신 뭇으로 인정을 걸어주겠다고 하였다.

1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도서출판 각, 2007, 606-610쪽.

일렛당 관련 본풀이 중, 동해용왕아기씨와 가장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토산일렛당본풀이> 계열이었다. 쫓겨난 용왕의 막내딸은 일렛당신인 동시에, 구삼승으로 좌정한 동해요왕아기씨였고 산육신(産育神)의 신격을 가졌다.<sup>16)</sup> 일렛당신은 제주도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농경신이며 산육·육아의 신이며, 피부병의 신이다. 제주도 전도의 보편적인 일반신본풀이에도 산육신이 있고, 각 마을마다 산재 일렛당에도 산육신이 있음을 일렛당본풀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 다 용왕의 딸이고 불효 혹은 분란의 책임 때문에 용궁에서 쫓겨나 무쇠석함에 담겨 떠다니다가 제주도로 들어오게 된다. 용왕의 딸은 아이의 포태를 시킨다거나 부술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보인다. 케네깃도가 아버지에 대한 불효로 쫓겨나 무쇠석함에 담겨 바다에 떠다니다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비슷한 경로를 지닌다. 케네깃도가 남성 영웅의 고난극복 과정이었다면 용왕의 막내딸은 여성영웅의 고난극복 과정이다. 그런데 케네깃도가 용왕의 셋째딸을 만난 후, 용왕의 셋째딸이 케네깃도와 역(逆)의 행로로 바닷길을 떠난다.

위에 인용한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용왕의 막내딸이 첩으로 등장하고 쫓겨나는 주체가 큰부인인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서는 용왕 막내딸이 큰부인으로 등장하고 다시 추방되는 시련을 겪게 된다. <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왕아기씨가 명진국아기씨에게 밀려나듯이 용왕의 막내딸도 축출당한다. 첩의 등장 때문은 아니다. 돼지털이 콧구멍으로 들어간 사건이 돼지고기 식성으로 오인되었기 때문에 축출당한 후 첩이 들어오게 되니, 차이점은 있으나 용왕의 딸이 큰 능력을 보이다가 축출당하는 측면은 매우 유사하다.

아이를 보살피는 신이 바다에서 출자(出自)했다는 것은, 바다 저편에서 곡식과 불과 같은 중요한 문명이 전해진다는 사유와 같다. 제주와 같은 섬에서 바다를 통해 도래하는 신격은 중히 여겨졌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래(渡來)신보다는 천상에서 하강하는 신격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동해용왕아기씨는 밀려나고 천상계에서 내려온 명진국아기

16) 이현정, 「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14, 15-16쪽.

씨가 주도권을 쥐고, 바다에서 온 신격은 밀려난다. 일반신에서는 이렇게 큰 변화를 보였지만, 마을 당신앙 체계에서는 여전히 용왕의 막내딸이 산육신으로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제주 신화체계의 변모과정이 느껴지는 대목이라 하겠다.

### Ⅲ. 해양능력과 탐라국 신화

서론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탐라국 건국신화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여신의 도래(渡來)이다. 여신들은 오곡종자를 가지고 들어온다. 철기문화·직조문화·농경문화는 고대문명과 연관된 것이고, 이것들은 고대국가 형성에 긴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철기와 비단과 오곡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가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일구어 낸 이야기가 고대 건국신화의 주류를 이룬다. 제주의 삼성신화도 이런 반열에 든다고 하겠다. 제주 건국신화에서는 3여신이 오곡종자 외에 송아지·망아지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 소와 말 역시 농경에 필요한 동력이었다. 제주에는 당신본풀이가 많이 남아 있는데, 부부신이 좌정하여 있는 경우 남신이 토착신이라면 여신은 도래신이다. 여신이 본향당의 주인인 경우도 많은데 바다를 건너온 여신이 많다. 그런데 여신이 주역인 상황에서 서서히 남신이 주역인 당본풀이가 많아졌을 것으로 본다. 설문대할망처럼 거인 여성이 주역이던 신화가 소로소천국같이 거인 남성이 주역인 신화로 바뀌어가고, 그 거인의 특성은 아들 궤네깃도로 이어진다. 여성영웅 서사시에서 남성영웅 서사시로 전개되어 나간다.

제주의 서사무가 중 궤네깃당본풀이 또는 이의 발전적 형태인 송당본풀이는 삼성신화의 근원적 신화에 해당된다. 송당본풀이의 소로소천국이 땅에서 솟아나듯이 삼성신화의 삼신인도 땅에서 솟아났다. 송당본풀이가 ‘웃송당’ ‘셋송당’ ‘알송당’의 상·중·하당의 세 신당이 공존하듯이, 삼성신화에서는 고을라·양을라·부을라의 삼신인이 등장한다. 송당본풀이의 여신 백주또가 무쇠철갑에 실려 제주에 표착하고 있듯이 삼성신화의 삼여신도 목함과 석함에 담겨 제주에 표착하고 있다. 송당본풀이의 남신이 사냥을 위주로 하고 여신(백주또)는 남신으로 하여금 농사를 새로이 시

작하게 하듯이 삼성신화에서 남신들은 사냥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데 삼 여신은 오곡종자를 가져와 농사를 시작한다. 송당본풀이의 남신(문곡성, 소로소천국의 아들)이 제주도 전체를 지배하는 신격이 되듯이 삼성신화의 삼신인이 탐라국을 건국하여 제주 전체를 지배하는 신격이 된다.<sup>17)</sup>

송당계 신화에서 소로소천국이 사냥을 하여 생업을 꾸려나갔는데, 자녀들이 많아지자 백주또가 농경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신에 의해 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그려지는데 탐라건국신화에서도 그렇다. 제주의 고·양·부 3신인은 사냥을 하면서 지내다가, 3여신과 혼인하여 농경문화를 정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송당본풀이와 삼성신화는 함께 남성신의 수렵문화에서 여성신의 농경문화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두 문화의 결합은 큰 힘을 발휘하게 하였고, 고대국가의 건설에까지 미치게 된다.

억만대병을 내어주시니 싸움흐레 나간다. 체얌(初)에 들어가서 머릿박 둘 둘 은 장설 죽이고 두 번째 들어가서 머릿박 셋 둘은 장설 죽이고, 식번체 들어가서 머릿박 넷 둘은 장설 죽이니, 다시는 데양(對抗)호 장수가 엇어 세벤도원수(世變都元帥)를 막으니, 대히(大喜)해야, “이러호 장수는 천하에 엇는 장수로다. 땅 흔착 물 흔착을 베여 주건 땅세(地稅) 국세(國稅) 받아 먹영 삼서.” “그도 마웨다.” “천금상(千金賞)에 만호후(萬戶侯)를 보(封)하라.” “그도 마웨다” “그레민 소원을 말하라” “소장(小將)은 본국(本國)으로 가갔습네다.”

관관술을 베여가지고 전선(戰船) 흔 척을 무어 무나무(珊瑚) 양식(糧食)을 흔 베 시끄고 백만군스를 대동하여 조선국(朝鮮國)을 나온다. …… 방광오름 가 방광을 식번 쳐서 백만군스(百萬軍士)를 허터두고, “백만군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작별(作別)해야 “한라연산(漢拏靈山)이나 구경가자.”<sup>18)</sup>

강남천자국에 난리가 나서 케네깃도가 억만 군사를 받아 난리를 평정한다. 그리고 천자로부터 여러 가지 포상을 제시하지만 거절하고 제주로 돌아온다. 백만 군사를 대동하여 “아방국을 치젠 들어옵네다”란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알손당(下松堂)에 죽어 좌정한다. 이에 케네깃도는 제주도 를 차지한 후 백만 군사를 돌려보낸다. 버려진 아들이 나중에 군사를

17)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89쪽.

1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도서출판 각, 2007, 557-559쪽.



이끌고 고국에 돌아와 아버지 나라를 치려고 했다는 내용은 매우 고대적이고 야생적인 요소를 그대로 간직한 신화다. 목은 질서는 이렇게 강하고 새로운 질서에 의해 교체된다고 생각하는 문맥 속에서 고대 영웅 신화의 전형을 보게 된다.

“어디서 온 맹장님이 되십니까?” “천하해동 조선국 제주도에서 들어온 문곡성이 됩시다.” …… 천즈지국은 문곡성을 ‘제일도원수’라는 직함을 지왔다. 갑옷 갑투기 내어주고, 억만대병 억만군스를 내어줬다. 천즈지국의 난을 석돌열흘 백일만이 평정을 시켰다. 천즈지국이 말을 흐되 “천하의 반을 갈라 주느냐?” …… “나를 조선국 제주도로 보내여 주십시오” 천즈국은 황제 혼연씨 수레를 지었다. 황제 혼연씨가 수레를 지고 거기 굴랑을 일천석 뚫고 일천병마 삼천군병을 거느리고 제주를 입도했다.<sup>19)</sup>

앞의 신화와 마찬가지로 문곡성은 억만 군사를 받아 강남천자국에서 난리를 평정하고 일천 병마와 삼천 군병을 거느리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온다. 그 후 문곡성 일행은 일천병마 삼천 군병을 거느리고 한라영산을 올랐다. 한라산에의 좌정은 제주도 전체를 지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런 위세에 놀란 금백조는 옷손당으로 달아나고 소천국은 알손당 고부니뭉루로 달아났다고 신화는 전한다.

송당본풀이의 문곡성 혹은 케네깃당본풀이의 케네깃도와 같은 주인공이 천자국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난리를 평정했다는 것은 주인공의 대단한 영웅적 면모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자국(중국)에서 인정하는 활약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천하의 반을 갈라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제주에 돌아온 내력은, 주인공의 해상능력을 보여주는 바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칠머리당의 신도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났는데, 백만 대병을 거느리고 제주에 들어온다. 백만 군사와 삼천 군병은 조금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엄청난 해상 세력을 거느린 영웅에 대한 장식적 표현이다. 그래서 조동일 교수는 ‘탐라국 건국서사시’가 재래의 수렵민과 외래의 농경민이 결합되어 생산력을 발전시킨 토대 위에서 안으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밖으로 주권을 지키는 영웅이 해상활동을 통해 힘을 키워 작

19)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413쪽.

지만 당당한 나라를 세운 위업을 나타냈다고 하면서, 탐라국의 위상을 해양능력에 맞추어 평가했다.<sup>20)</sup>

고대국가의 형성시기를 1세기 즈음으로 보고, 탐라도 ‘國’으로서의 면모를 지니며 서서히 고대국가 체제로 성장하였음을 입증한 바 있다. 강남천자국을 평정하고 군사를 이끌고 제주로 돌아오는 궤네깃도(문곡성)의 내력은 바로 동아시아 해양문화권의 해상능력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고, 삼여신이 농경과 목축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것 역시 고대문명의 전래와 탐라국의 형성과정을 상징하는 문맥이라 하겠다. 본풀이(신화) 속에 탐라국은 1세기에 탄생하였다. 심방들이 영평 8년(AD 65년) 고·양·부 3신인이 솟아나 나라를 세웠다고 했다. 우리는 신화를 통해 한반도의 고대국가와 대등한 시기에 탄생한 탐라국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sup>21)</sup>

#### IV. 바다 바깥과의 교류

##### 1. 강남천자국에서의 출자

영등신과 삼여신을 비롯한 무수한 제주의 신이 출자한 강남천자국이 어디인가. 천상계에서 하강하는 고대 건국신화 뒤에는 바다 건너 땅에서 도래하는 시조도래신화가 탄생한다. 시조도래 건국신화의 기본 설정은,

20) 조동일,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제주도연구』19집, 제주학회, 2001, 102-104쪽.

21)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1, 202-204쪽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928년 산지항 축조 공사시 발견된 오수전은 BC 118년부터 주조되어 사용되었던 화폐이며 왕망 때 잠시 사용과 주조가 금지되었다가 후한 이후 다시 주조되었고, 오수전이 왕망전과 함께 출토되기 때문에 그 연대가 기원 후 1세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 오수전이 제주도 산지항, 전남 거문도, 마산 성산 패총, 황해도 운송리 등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들은 중국과 상당한 왕래와 교역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고대 제주도 역사기술을 한반도의 중심시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상고 탐라를 동아시아 또는 동지나 해양문화권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이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이 신화와 본풀이에 반영되어 있다.

문명권 중심부의 인물이 주변부로 도래해서 현지의 지배자 신분의 여성과 결혼하고 그곳의 통치자가 되어 문명을 전파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도래한 인물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어서, 왕이 되지 않고 왕후가 되었다고 했다. 여성신이 문명을 전한 문맥이다. 삼여신이 망아지와 송아지, 그리고 오곡종자를 가져왔다는 것은 고대문명을 전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당본풀이에서 중국 혹은 천자국을 빙자한 것은 중세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고대에 형성된 당본풀이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우선은 중세국가인 고려의 권위를 빌려 당신의 신성화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중세국가의 중심축이라 할 중국의 권위를 빌려 신성화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고대의 탐라국이 중세화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중세국가에 예속되면서 중심부와의 친연성을 강조하고 그 권위를 가져다 당신의 권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서울 혹은 중국에서 출자했다고 변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구비전승은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문맥이 끊임없이 쇄신된다.

그 예를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신라의 선도산 성모는 서술성모라고도 하고, 박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로서 곡모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대 건국주의 어머니 신격인 셈이다. 그리고 가야의 허 왕후는 수로의 배필이 되어 고대국가를 연 주인공이다. 그런데 신라의 선도산 성모는 중국제실의 딸이라고 하거나, 가야의 허 왕후가 불교를 들여왔다는 부언은 바로 중세문명의 도래를 의미한다.<sup>22)</sup> 고대국가의 건설과 관련된 신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의 권위를 빌어 신성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변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송당본풀이에서는 백주또 여신이 ‘강남천자국’에서 왔다고 한다. 자식인 문곡성은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다가 무쇠철갑에 담겨 버려지지만 용왕국에 표착하고, 다시 식성이 과다하여 상자에 담긴 채 쫓겨나 강남천자국에 표착한다. 후에 강남천자국의 난을 평정하고 제주에 돌아와 한라산 ‘브름목’에 좌정하게 된다. 우리는 송당본풀이에서 백주또와 문곡성이 ‘강남천자국’에서 출자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다. 앞에서

22) 조동일, 「시조도래건국의 중세 인식」,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96-141쪽.

살폈다시피 온평리의 당본풀이에서 세 여신이 출자한 곳이 역시 ‘강남천자국’이다.

강남 천제국  
 정중국 안가름서  
 삼성제가 솟아나  
 제주 입도하야  
 큰성님은 조천관  
 앞선도 정중부인이고  
 죽은아신 열룬이  
 고장낭발 명호부인이고  
 셋성님은 집녕 관사전부인<sup>23)</sup>

현용준 채록본이나 진성기 채록본이나 모두 이달춘 구연이다. 현용준 채록본에서는 “정중부인, 관세전부인, 명호부인”이고, 여기서는 “정중부인, 관사전부인, 명호부인”으로 조금 다르지만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것은 같다. 삼성신화에서는 ‘일본국’ 혹은 ‘벽랑국’에서 왔다고 했는데, 삼성신화와 밀접한 당본풀이에서는 여신의 출자가 ‘강남천자국’으로 일치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소섬본향>에서도 “강남천즈국 믈른 발 배 들러 요왕 신중 선왕”(김병생 구연) 혹은 “강남천즈국 믈른 발 배 들러 온 육곰이”(강봉언 구연) “강남천즈국 믈른 발디서 솟아난 장할으방 장할망”(이백남 구연)<sup>24)</sup> 이라고 하여 신의 이름은 용왕, 육곰, 장할으방과 장할망으로 조금씩 다르나 그 출자처는 ‘강남천즈국’으로 같다. 여기 소섬(우도)는 2월 보름에 영등할망을 환송하는 의례가 벌어지는 곳이고 영등할망도 ‘강남천즈국’에서 왔다고 하였다. 소섬 동천진동 <소섬당>에서는 “영등들엔 동경국 이서 들어온 영등할으방 영등할망이 혼들간 유희엿당 갑네다.”(영등달에는 동경국에서 들어온 영등하르방과 영등할망이 한 달 간 머물었다가 갑니다.)<sup>25)</sup>라 하여 영등신의 유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출자처가 ‘동경

23)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381쪽. ‘김녕본향’

24)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420-421쪽. ‘소섬본향’

25)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422쪽. ‘소섬당’

국'으로 조금 다르다.

“예촌본향은 백관님, 도원님, 도병서도. 시성제우다. 첫째는 하로영산 동남밭디서 솟아오른 백관님이우다. 둘째는 강남천제국서 솟아오른 도원님이우다.”<sup>26)</sup> 첫째는 예촌에 한라산에서 솟아나 좌정한 백관님이고, 둘째는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나 제주도로 온 도원님(都元帥)이다. 강남천자국 아들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무쇠 칠갑에 갇혀 버려지는데 동해용궁에 다다라서 용왕의 셋째 딸과 인연을 맺고 석 달을 살다가 제주도 오라리로 와서 세상을 살펴보고 예촌으로 와 백관님과 형제를 맺었다고 한다. 예촌본향을 비롯한 한라산계 본풀이에서는 대개 형제가 한라산에서 솟아나는 데 반해 여기 ‘도원님’의 출지는 예외적이다. <송당본풀이>는 제주에서 태어난 아들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무쇠 칠갑에 갇혀 버려지는데 동해용궁에 가서 용왕의 셋째 딸과 인연을 맺고 몇 달을 살다가 강남천자국에 가서 난리를 평정하는 공을 세운 후에 제주로 돌아와 좌정하는 이야기다. 송당계 본풀이와 한라산계 본풀이가 이렇게 만나지는 지점이 있다. 이처럼 ‘강남천자국’ 출지는 제주도 전역에 큰 의미를 띤다.

열룬이  
 명오부인은  
 대국 명나라  
 명천즈의 손.  
 명나라  
 명천즈가  
 딸 삼성제가  
 잘 나서  
 역적에 물려들어  
 구양을 보내니  
 큰딸은 조천 정중부인  
 셋딸은 집녕 황새부인  
 말갓딸은 열룬이 명오부인<sup>27)</sup>

26)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490쪽. ‘신례본향’

27)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452쪽. ‘온평본향’

<온평본향>은 앞에서 살핀 <김녕본향>과 같은 계열의 본풀이다. 여기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조천본향>도 역시 같다. 열론이가 온평리의 옛 이름이다. <온평본향>에서는 ‘강남천자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나라 천자국’이라고 했다. 막연하게 강남천자국이라 했던 것을 중세의 사정에 맞게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바다 멀리를 ‘강남’으로 사유한 흔적이 있는데, 그 땅을 ‘천자국’으로 인식하여 ‘강남천자국’이라 한 경우도 많다. 위대한 신이 중국 천자의 땅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여 신의 권위를 높이며 한 것이 중세 때의 보편적인 변화였다. 고대에는 고대국이 중심부에서 왔다고 하였고, 중세에는 문명의 중심부 중국에서 왔다는 관념이 신화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 2. 일본과의 교류

우선 탐라건국신화를 보자. <고려사계> 삼성신화와 <영주지계> 삼성신화가 삼여신이 출자한 곳에 의거하여 크게 둘로 나뉘고, <고려사계>는 ‘일본국’으로, <영주지계>는 ‘벽랑국’으로 적고 있다. 이 삼성신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온평리와 김녕의 당본풀이에서는 삼여신이 ‘서울’ ‘명나라’ ‘강남 천자국’ 등에서 출자했다고 한다. 삼여신의 출자처를 서울 혹은 중국 혹은 천자국으로 설정한 것은 후대의 변이일 것이다.

온평리의 촌로들에게서 수집한 삼여신의 도래와 혼인지의 이야기는 ‘황노알’에 표류한 세 여인을 ‘금관국의 공주’라고 한 경우도 있다.<sup>28)</sup> 여기서 금관국이라 한 것도 역시 탐라국의 건국 주역인 삼신인과 격을 맞추기 위해 국가의 이름을 빌되, 좀더 현실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의 금관국 출자를 구비전승에 가져온 것일 듯하다. 실제로 해상 교류가 가능한 금관국에서 왔을 개연성도 있지만, 기록 자료에 전무한 것을 보면 후대의 변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애초의 출자처는 ‘벽랑국’에 가까울 것이고, 현용준 선생이 추정하였듯이 ‘바당’(바다)의 의미<sup>29)</sup>라 하겠

28) 문무병,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 성산읍 온평리의 경우」, 『백록어문』7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90, 12쪽.

고, 벽랑국은 ‘바다 저쪽’의 상상의 공간이라 하겠다. 일본국이라 한 것은 삼여신이 동해 먼 바다의 ‘일출처(日出處)’에서 왔다는 것의 구체적 표현이고, 탐라건국의 주역인 삼신인과 격을 맞추기 위해 국가의 이름을 빌었던 때문일 것으로 본다.

탐라국 시절 그들에게 바다와 바다 건너 일본은 문명의 중요한 교류처였을 것이다. 일본은 애초 북큐슈에서 대마도를 경유하여,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 조선반도 서해안, 요동반도 남해안을 거쳐 산둥반도 등주(登州)에 이르는 북로(北路) 루트로 중국과 교류하였다. 그러다 조선반도의 정세변화에 의해 이 루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나당전쟁 이후 나당관계가 단절되고 왜국은 북로의 건당사 파견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다.<sup>30)</sup> 이때까지 탐라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다양한 교역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60년 백제가 당군의 침공에 의하여 멸망하자, 탐라는 독자 외교를 전개하며, 그 해에 당에 사신을 파견하고(<唐會要>) 661년(왜국 齊明天皇 7년)에는 제4회 건당사가 탐라에 표착했던 것을 기화로 왕자 아파기(阿波伎) 등을 일본에 파견하고 조공하였다. 여기서 일본의 건당사가 탐라에 표착하였던 점을 주목할 만하다. 북로 항해 중에 한반도의 남해안도 항해의 표지가 되지만, 해발 1950m의 한라산은 시인거리가 약 100마일이나 되어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겐 자기 위치를 측정하고, 항로를 결정하는 데 매우 이상적인 등대 역할을 했다.<sup>31)</sup> 탐라가 중간 정거장 기능과 함께 피항지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이전은 탐라국에 중요한 기항지 역할과 함께 중국과 일본의 중간교역을 하는 장소로서도 기능하였을 것이다.

이후 탐라는 678년(왜국 天武天皇 7년)까지 공식적 기록으로 남은 것

29)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93쪽.

30) 東野治之, 『遣唐使』, 岩波書店, 1990, 64쪽.

31) 윤명철, 「동아시아중해의 해양문화와 21세기 제주도의 위상과 역할」, 『바닷길과 별자리로 읽는 탐라문화』, 제주도, 2007, 51쪽. 윤명철도 제주도의 위상을 논하면서 기록에 의존하여 항해 루트를 제시하고 제주가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역설하는 데 머물고 있다. 구비전승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을 보면 9 차례의 사절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탐라는 679년 신라에 복속된 후, 사신 파견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679년, 684년 일본에서 탐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후 688년, 693년 탐라에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지만, 정규의 국교 유지 상태가 아니어서 입경(入京)치 못하고 다자이후(大宰府)에 머물렀다.<sup>32)</sup>

일본에는 지금도 ‘도라악(度羅樂)’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탐라의 음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度)는 ‘탁’으로도 읽힌다. 그러니 그것은 ‘탁라악’이 된다. 탁라는 탐라의 별칭이다. 여러 번 사신이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공물을 주고받았는데, 이때 탐라의 문물도 일본에 전해지고 일본에 대한 여러 정보가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심방의 사실 속에는 중국과 함께 일본을 자주 거론하면서 신의 노정기를 구술하고 있고, “일본은 주년국”이란 사실을 관행처럼 읊조린다.

### 3. 조선조 육지와와의 교류

조선 초부터 제주와 육지와의 왕래가 빈번해졌다. 전라도 지역이 중요한 출발점이었고 나주가 일찍부터 자주 등장한다. 그런 근거가 최부의 <표해록>에도 드러난다. 최부는 윤 정월 2일 별도포의 후풍관에서 바람을 기다렸다가 다음날 동풍이 불자 배를 타고 나주로 향했다. 당시 제주에서 육지 깊숙이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가 나주 뱃길이었다.<sup>33)</sup> 백호 임제와 추사 김정희도 나주에서 출발하여 제주에 닿았다. 조선시대 뱃길이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나오는데, 나주 영산강-무안-목포-해남-추자-제주가 하나였고, 해남 관두-노화도-보길도-제주 뱃길, 강진-완도-소안도-제주 뱃길 등이 있었다.

제주도에서 배를 출발하고 난 후 표류하게 되자, 안의(安義)가 군인 등과 서로 말하여 신에게 알아듣도록 하기를, “이번 행차가 표류해 죽게 될 까닭을 나는 알고 있었다. 차고로 무릇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광주(光州) 무등산(無等山)의 신사(神祠)와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의 신사에 제사를 지냈으며,

32) 森公章, 『白村江 以後 國家危機と東アジア外交』, 講談社, 1998.

33) 국립제주박물관 편, 『조선선비 최부 뜻밖의 중국견문』, 2015, 68쪽.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광양(廣壤)·차귀(遮歸)·천외(川外)·초춘(楚春) 등의 신사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떠났던 까닭으로, 신(神)의 도움을 받아 큰 바다를 순조롭게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경차관은 특별히 큰소리를 치면서 이를 그르게 여겨, 올 때도 무등산과 금성산의 신사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갈 때도 광양의 여러 신사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 신을 업신여겨 공경하지 않았으므로, 신 또한 돌보지 아니하여 이러한 극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누구를 허물하겠는가?<sup>34)</sup>

최부의 <표해록> 중 첫머리 표류가 시작되는 장면이다. 신에게 치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안의와 뱃사람들의 불만에 대해 최부는 표류되고 안 되고를 신이 좌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합리적 태도가 드러난다. 그런데 대부분의 뱃람들은 제주의 광양당과 차귀당과 내왓당에서 안전을 기원하는 무속의례를 거행하고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제주로 배를 띄울 때는 무등산과 금성산에서 무속의례를 거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최부도 알고 있었다. 그 자세한 내력은 당본풀이에 여럿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산 여드랫당본풀이다. 토산신은 나주 금성산에서 솟아난 뱀신이었다. 나주목사의 탄압을 피해 바다를 건너 제주에 와 토산에 좌정한 신이다. 다음 나주 기민창에서 곡식을 실은 배와 함께 바다를 건너 제주에 온 신이 나주 기민창 뱀신이다.

<나주 기민창 조상본풀이>는 다음과 같다. 옛날 순흥에서 삼형제가 제주에 내려왔다. 큰 형은 어림비(애월면 어음리)에 자리잡고, 둘째형은 과남(애월면 남읍리)에 살고, 작은 아우는 서늘(조천면 조천리)에 살게 되었다. 안씨 선주는 천하거부로 살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배를 빌려 주어 포구마다 안씨 선주의 배로 가득찼었다. 이때, 제주에는 칠 년 가뭄이 들어 제주 백성이 다 굶어 죽게 되어 가는 판이었다. 제주 목사는 안씨 선주의 재산이면, 제주 백성이 사흘을 먹고 남은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안씨 선주에게 구해를 부탁한다. 안씨 선주는 빌려 줬던 배들을 다 거두고 돈을 상선·중선·하선에 가득 싣고 쌀을 사러 떠났다.

배를 영암 덕진다리에 붙이고 나주 기민창에 삼 년 묵은 무곡을 사서

34) 최부, 『표해록』, 1488년 윤1월 14일(성종 19년).

무사히 제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배를 띄우는 순간 갑사 땡기에 머리를 땅아 늘인 처녀 아기가 발판으로 배에 올라오는 것이 언뜻 보였다. 제주 물마루가 가까워졌을 무렵 잔잔하던 바다에 회오리바람이 치더니, 산같은 파도가 연이어 밀어닥치어 뱃전 밑으로 구멍이 터졌다. 간절히 두손 모아 빌었더니, 가라앉던 배의 터진 구멍을 큰 뱀이 막고 있었고, 전에 탔던 아기가 바로 뱀신이었고, 나주 기민창 동서남북 창고를 지키던 조상이다. 기민창고가 비어가니 무곡을 따라왔다. 안씨 선주는 조상신으로 모시고 상단골이 되어 이 나주 기민창 곡식에서 따라온 신을 부군칠성으로 모시게 되었다.<sup>35)</sup>

현용준은 이 기민창을 ‘제민창(濟民倉)’으로 적고 있다. 나주에 있던 제민창의 역사적 근거를 들어 그렇게 한자로 표기한 것 같다.

영산창(榮山倉) 금강진(錦江津) 언덕에 있으니 곧 영산현(榮山縣)이다. 나주 및 순천(順天)·강진(康津)·광산(光山)·진도(珍島)·낙안(樂安)·광양(光陽)·화순(和順)·남평(南平)·동복(同福)·흥양(興陽)·무안(務安)·능성(綾城)·영암(靈巖)·보성(寶城)·장흥(長興)·해남(海南) 등지의 전세(田稅)를 여기에 거두어 들였다가 배로 서울에 운반한다. 『신증』 금상(今上) 7년에 이 창고에 거두어 들이던 것을 영광(靈光)의 법성창(法聖倉)으로 옮겼으므로 폐지되었다.<sup>36)</sup>

영산창(榮山倉) 금강진(錦江津) 가에 있는데 채산현(萊山縣)의 옛 터이다. 국초(國初)에 조창(漕倉)을 두고 창성(倉城)을 쌓아, 나주·광주·순천·강진·진도·낙안(樂安)·광양·화순·남평·동복·흥양(興陽)·무안·능주·영암·보성·장흥·해남 등의 전세(田稅)를 이곳에서 서울로 운송하였다. 중종 7년에 조창을 영광의 법성포(法聖浦)로 옮겼는데, 지금은 강창(江倉) 뿐이다. 나리포창(羅里浦倉) 제주(濟州)와 접하여서 설치하였다. 중종(中宗) 때에 공주(公州)에 설치하였는데, 경종(景宗) 때에 임피(臨陂)로 옮겼으며, 영종(英宗) 때에는 군산(群山)에 속하게 하였다. 다시 임피로 환원했으며 정종(正宗) 때에 이곳 제민창(濟民倉)으로 옮겼다. 《대동지지(大東地志)》

법성창(法聖倉) 법성포에 있는데, 본군 및 흥덕(興德)·옥과(玉果)·부안(扶安)·함평·진원·담양(潭陽)·무장·장성(長城)·정읍(井邑)·곡성(谷城)·창평(昌平)·고부

35)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382-397쪽.

36) 『新增東國輿地勝覽』35, 全羅道 羅州牧, 倉庫.

(古阜)·순창(淳昌)·고창(高敞) 등의 관전세를 여기에서 거두어 들여서 서울까지 수로로 운반한다. 『신증』 금상(今上) 7년에 조정의 의론으로 나주 영산(榮山)의 창고는 수로가 험하기 때문에 배가 많이 전복되어 손실이 많으므로 우창(右倉)에서 거두어 들이는 전세(田稅)를 여기로 옮기고, 또 이 창고에서 거두는 흥덕·부안·고부·정읍 등의 관전세를 군산창(群山倉)에서 나누었다.<sup>37)</sup>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중종 25년(1530)에 만들어졌는데 이보다 조금 앞선 중종 7년에 영산창은 법성창(法聖倉)으로 옮기고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영광의 법성포를 보면 알 수 있다. “나주 영산(榮山)의 창고는 수로가 험하기 때문에 배가 많이 전복되어 손실이 많으므로” 옮기게 되었고, 나주 영산포의 영화로움은 중종대에 그치고 만다. 나주가 쇠락하게 된 것은 영산포의 폐쇄와 연관되고 이런 조치는 금성산의 음사(淫祀)와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 영산(羅州靈山) 금성산(錦城山)’이라 했던 토산신의 출자처는 영산포의 영산(榮山)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여기서 나리포창(羅里浦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애초 공주에 있다가 임피로 갔다가 군산으로 갔다가 다시 임피로 오고, 다음으로 제민창으로 왔다. 그 이유는 “제주(濟州)와 접하여서 설치하였다.”고 했듯이 제주와 관련된 물산을 수송하기 유리한 곳이 선택되었고, 정조 때 나주로 옮겨왔다. 임피는 옥구이고 옥구의 나포에 나리포창을 두었다가 근처의 군산으로 옮겼다 환원하고, 이어 서해에서 남해 나주로 옮긴다. 나주에서의 물길이 제주로 오는 데 유리했기 때문일 것만은 아니다. 나주평야에서 곡식이 많아 생산되어 기근이 들었을 경우 많은 곡식을 모아 수송하기 유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 기근에 나주 기민창에서 곡식을 사왔다는 <나주 기민창 본풀이>가 허구만은 아니다.

아침에 전라 감사의 보고서를 보았는데, 제주에 기근이 들었다고 알려와 나리포창(羅里浦倉)의 곡식을 배로 실어 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굶주린 섬 백성들이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해 잠시도 잊을 수가 없다.<sup>38)</sup>

37) 『新增東國輿地勝覽』36, 全羅道 靈光郡, 倉庫.

38) 『弘齋全書』, 日得錄.

1793년 제주목사가 5만 포의 구휼미를 요청한 말을 듣고 정조가 우선 3만 포를 조치하였다. 당시 제주민은 3만 호 정도였던 점을 들어 3만 포만 구휼하지고 제안하지만, 정조는 제주의 사정이 딱하다고 여겨 제주목사의 청원을 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 2만 포에 해당하는 것은 왕실의 재산으로 보충하여 후에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구휼미가 보내지는 창고가 바로 나리포창이다. 그리고 나리포창이 나주의 제민창으로 옮겨진 것이고, 나주 기민창 이야기는 ‘제민창’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민창에서 쌀이 오면서 쥐의 피해로부터 쌀 창고를 지키는 뱀신도 함께 제주로 들어온다. 그렇다면 나주에서 들어온 뱀신앙은 농작물을 쥐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한 지혜가 사회적 규율을 거쳐 신앙적인 측면으로 고정된다는 인류학적 견지에서 해석할 여지도 있다.<sup>39)</sup>

<토산 여드랫당 본풀이>에서 나주 영산의 신이었던 존재가 서울을 거쳐 제주도에 내려오고, <나주기민창본풀이>에서 곡식 창고의 신이 제주로 옮겨오는 현상은 제주 토착문화 속에 오래 문화가 섞여 들어오는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 제주와 육지와의 교류 속에서 문화체계를 바꾸는 큰 변동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광청아기본풀이>에서 송동지 영감이 사또의 명으로 서울에 진상을 다녀오다가 광청고을의 허정승 집에 머물다가 광청아기와 연분을 맺게 되는 사연을 통해서 서울의 상업도시와 문물을 만나는 제주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구슬할망본풀이><sup>40)</sup>에서 김씨 사공이 서울 상감에게 우미 전각 미역 등을 진상하고 내려오다가 서울 서대문 밖에서 구슬할망을 만나게 되는 사연을 통해 서울 변두리 문화가 제주에 끼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39) 이기욱, 「제주도 사신송배의 생태학」,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1989, 181-212쪽.

40) <구슬할망본풀이>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촌 큰물머리에 살던 김동지 영감은 본래 김씨 사공이라고 불렸다. 김씨 사공은 비섯, 우무, 청각, 미역, 오징어 등 제주의 특산물을 진상하러 서울로 갔다. 김씨 사공이 진상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서대문 밖에 이르렀다. 밤인 데다 인적이 없는데 어디선가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김사공이 소리 나는 곳에 가 보니 어떤 처녀 아기가 울고 있었다. 아기가 자신은 서대문 밖 허정승의 딸인데 부모에게 버려져서 갈 곳이 없는 처지임을 말하고 김사공에게 자신을 데려가 줄 것을 간청했다. 김사공이 배도포 자락에 아기를 감춰 제주도로 들어와서는 아기를 상다락에 두고 기른다.

## V. 결론

제주는 육지와 다른 점이 많다.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신화나 신앙체계도 다르고 문화 인식도 다르다. 한반도의 신화는 천상에서 하강한 신의 내력이 위주인데 제주 신은 땅에서 솟아난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 대개 바다를 건너온다. 바다 멀리 출자처는 다양하다. 바다 멀리 상상의 나라일 수도 있고 일본과 중국 같은 구체적인 장소인 경우도 있다. 육지에서 출자한 경우도 많은데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온 경우와 제주에서 가까운 전라도에서 해로를 따라 온 경우가 많다. 제주와 인접한 일본에서 신이 온다고 하거나 바다의 신이 일본 주년국에 가서 신이 되었다고 한 경우도 있다. 바다 멀리를 ‘강남’으로 사유한 흔적이 있는데, 그 땅을 ‘천자국’으로 인식하여 ‘강남천자국’이라 한 경우도 많다. 위대한 신이 중국 천자의 땅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여 신의 권위를 높이려 한 것이 중세 때의 보편적인 변화였다. 고대에는 고대국가 중심부에서 왔다고 하였고, 중세에는 문명의 중심부 중국에서 왔다는 관념이 신화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바다를 근거로 살다 보니 바닷속 용왕신이 그들 삶을 지배한다고 여겨 주요 신앙대상이 되었고, 용왕의 딸이 인간세계에 와서 신앙대상이 된 경우도 많다. 바다의 신이 생산과 풍요를 주재한다는 생각은 생명 탄생의 신이 바다에서 온다고 하는 사유로 이어졌다. 그래서 산육신이 용왕의 딸이다. 일반신인 삼승할망이 좌정하기 전에 그 일을 맡았던 구삼승할망이 용왕의 딸이고, 마을마다 있는 일렛당의 당신이 용왕의 딸이다. 영등신이 1년에 한 번 내방하여 해산물의 풍요를 관장한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다. 역시 바다를 건너온 외래신이 중요하게 신앙된 흔적이다. 이런 외래신 이전에 풍요와 안전을 지키주는 신은 제주의 설문대할망이다. 바다를 건너온 신으로 그려지기도 하는 설문대할망의 신화 이후 많은 신들이 바다를 건넌다. 그 설문대할망 신앙은 잊혀지지 않고 조선 후기까지 지속된다.

우리 표류하던 일행은 문득 한라산을 가까이 눈앞에 보고는 기쁨이 지나쳐  
저도 모르게 목을 놓아 호곡한다. “슬프다. 부모님이 저 산봉우리에 올라가 보

셨겠지. 처자들이 저 산에 올라가 기다렸겠지.” 혹은 일어나 한라산을 보고 절하며 축원한다. “白鹿仙子님, 살려주소, 살려주소, 誚麻仙婆님, 살려주소, 살려주소.” 대제 탐라 사람에게는 세간에 전하기를 仙翁이 흰 사슴을 타고 한라산 위에서 놀았다 하고, 또한 아득한 옛날에 誚麻姑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서 한라산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선마선과와 백록선자에게 살려달라고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은 당연하다. 나 역시 한라산을 바라보게 되니 슬픔과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차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漂海錄〉, 1771년 1월 5일)

제주에서 육지로 올라가다가 표류하여 제주 근처를 지나가게 된 제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살려주기를 기원한다. 설문대할망이 산신으로 신앙되었던 흔적을 장한철의 표해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신으로 국가를 보호하고 비바람을 조절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도 있지만, 수신 혹은 해신으로 생산의 풍요와 뱃길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능도 있다.

제주에 있어 바다는 풍요의 근거였고, 많은 신들이 오는 길목이었고,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던 소통의 장이었다. 바다를 통해 일본·중국과 교류하였고 이따금 표류를 겪으면서 오키나와·대만·월남에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그 술한 표류의 기억이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나타나는 데, 조선 후기 실학과 지식인들은 바다 밖의 사정을 이 제주 표류민을 통해 얻어들을 수 있었다. 제주는 자의건 타의건 바다로 열린 섬이었다. 제주는 태평양을 향한 교두보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이제 다시 바다를 향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해양의 시대에 걸맞는 제주의 해양 정책이 필요하고, 태평양을 향한 해양 연구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 金尙憲, 『南槎錄』, 永嘉文化社, 1992.
- 『新增東國輿地勝覽』35, 全羅道 羅州牧; 36, 全羅道 靈光郡.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최부, 『표해록』.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9-2.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도서출판 각, 2007.
- 『弘齋全書』, 日得錄.
- 강소진, 「제주도 잠수굿 연구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 강정식, 한국 제주도의 해양신앙, 『도서문화』27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
- 국립제주박물관 편, 『조선선비 최부 뜻밖의 중국견문』, 2015.
- 김진순,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 『비교민속학』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 김진하, 「송당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탐라문화』 30,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7.
- 김현선 외,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6.
- 東野治之, 『遣唐使』, 岩波書店, 1990.
- 문무병,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 성산읍 온평리의 경우」, 『백록어문』7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90.
- 森公章, 『白村江 以後 國家危機と東アジア外交』, 講談社, 1998.
- 윤명철, 「동아시아중해의 해양문화와 21세기 제주도의 위상과 역할」, 『바닷길과 별자리로 읽는 탐라문화』, 제주도, 2007.
- 이기욱, 「제주도 사신송배의 생태학」,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1989.
-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1995.
- 이현정, 「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14.
- 赤松知城·秋葉隆, 최석영 역, 『朝鮮巫俗의 研究』상, 민속원, 2008.

- 전경수,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4, 제주도연구회, 1987.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조동일, 「시조도래건국의 중세 인식」,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 조동일,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제주도연구』19집, 제주학회, 2001.
- 카렌 암스트롱,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1.
-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93쪽.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Abstract

## Marine exchange and culture in the Jeju myth

Heo, Nam-Choon\*

First, this article considered the Dragon King who was representative God of the sea. A Dragon King is admired Village guardian deity. A Dragon King is admired by general God(一般神) of the whole Jeju Island. Second, I compared three daughter Visit God of Tamla Dynasty with the Visit Goddess in the Myth of Village guardian deity(堂神敘事詩). Therefore I looked for the basis of Tamla Dynasty. While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Kangnam emperor country(江南天子國), I sympathized what was the meaning of China and the emperor country recognized by a Jeju person. It was recorded three daughter God came from Japan, this article should see marine interchange Jeju and Japan in Jeju Myth(敘事詩), and sympathize with faith and the myth which began from interchange with the land.

There are many points unlike Korean Peninsula and Jeju. Because the culture was different, a myth and the faith systems ware different, and the culture recognition was different. God of the Korean Peninsula withdraw from the sky, but Jeju God springs out in the ground. And the spouse usually cross the sea. Starting places ware various. The sea was far, and there was imaginary island, or the concrete place such as Japan and China. God often pass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rea.

---

\*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Jeju Univ.

God often followed a sea route near by Jeonrado(全羅道). God came from Seoul that was a center of the culture and politics. God may come from near Japan to Jeju, and God may go to Japan from Jeju. The people thought that they came from Kangnam(江南) in the sea distance. The thought that came from the Kangnam emperor country is the evidence that yearned for China momentarily. The thought reflexed in a myth that God come from the national center in the ancient time, and God came from China which was a center of the civilization in the Middle Ages.

They thought that a Dragon King ruled their life because they lived on grounds for the sea. So the Dragon King became targeted for the most important faith. And a daughter of Dragon King came to the human being world and became often targeted for faith. This thought connected to the resort that God who gives a heaven-sent child for life came from the sea. So God who gives a heaven-sent child for life was a daughter of Dragon King. There was the mind to tell that soul up God visited it once a year and took charge of the fertility of marine products. After all our patient department God who crossed the sea seemed momentarily. It was Seolmundae Halmang(설문대할망) of Jeju who God who keep fertility and security very before. Many gods cross the sea after a myth of Seolmundae Halmang. The faith continues without forgetting it.

The sea was a ground of the fertility in Jeju, and many gods were forth coming city streets and were a chapter of the understanding that interchanged with neighboring countries. Jeju interchanged with Japan, China through the sea. I went to Okinawa, Taiwan, Vietnam while sometimes drifting. Memory of much drifting appears in <Tamlamuncheonrok>(탐라문견록). The intellectual got overseas circumstances through a citizen of Jeju drifting in last part of Joseon(朝鮮). Jeju was an island open for one's thought and any other intention in the sea. Jeju must realize by the bridge letter of appointment to

Pacific to again. An open mind for the sea is necessary. A marine policy of Jeju appropriate for the marine times is necessary. In addition, I hope that it is opened the craftsman of the marine study for Pacific.

Key words : Dragon King, Kunung(military male God), 江南天子國(Kangnam emperor country), Japan, Yeongdung(Wind God), 蛇神(Snake God), 羅州(Nazu), 東海龍王(Dregon King of East Sea).

교신 : 허남춘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 hnc423@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6. 04. 20.

심사완료일 2016. 06. 10.

게재확정일 2016. 06. 13.

